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보감위, 중국 보험업계 투입된 외국자본 유출 감시

□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위)는 자국 내 보험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외국자본 유출을 감시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실행함.

- 보감위는 모든 보험회사와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10월 31일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씩 외국자본 동향을 보고하라고 긴급 지시함.
- 이와 함께 보감위는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자본유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각사 전략을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함.
- 이번 조치들은 지난 10월 중순 자국 내 외자보험회사 및 중외합자보험회사에 외국측 주주의 동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외국자본 유출을 감시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임.

□ 중국 정부는 이번 긴급 지시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향후 중국 보험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.

- 보감위는 중국 국내 보험회사에 투자한 외국 모기업이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 자금 회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국내 보험회사도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- 현재 97개 중국 내 보험회사들 중에서 39개 보험회사가 외국 독자 혹은 합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, 다수의 중국 보험회사들은 전략적인 이유로 외국자본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상황임.
- 대부분의 대형 보험회사들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, 특히 중국인민보험공사는 미국 AIG가 9.9%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보감위의 특별 관심 대상임.

(21세기경제보도 10/31,
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0/31)